

2021. 7. 30. (금) 10:00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논산시의회 의원 차경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차경선 의원  
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논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  
주야 애쓰시는 황명선 시장님, 관제 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제225회 임시회  
로 지역현안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집행  
부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한

내실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짐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논산시는 엿그제 28일, 오랜기간 준비해 온 ‘탐정호 출렁다리’가 개방되었고, 논산시민은 물론 타 지역 관광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30일에 첫 삼을 뜨고 오늘 까지 수고하여 주신 황명선 시장님과 관제 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탐정호 출렁다리는 무엇보다 ‘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앞으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이라고도 함)과 수유실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들과 노모가 함께 오거나, 아빠와 어린 딸아이, 엄마와 아들, 성별이 다른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며, 온 나라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신부나 수유부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화장실 증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 주차장 5개소의 주차대수는 대형차 310대, 소형차 3,075대 등 총 3,385대를 확보를 하였으나,

공중화장실은 8개소 11개동, 이동화장실 4개소 6개동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주차 차량대수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시 대표 관광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화장실 증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준다면, 논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 한편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자랑인 ‘시민공원’ 역시 2016년 5월 4일 개장한 이후 장미원과 족욕 체험장, 최근 공원 위쪽으로 풍차와 꽃밭을 만드는 등 시설물은 증가되고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더불어 시민공원 면적이 확대되면서 논산시민은 물론 인근 대전시, 제천시 등에서 찾아오는 외래 방문객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에 시민공원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화장실 증설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출렁다리 주변 주차장 내에 대형버스 기사분이나, 보호자가 기다릴 때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잠시 쉴 수 있는 벤치 등 방문객들이 편히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많이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렁다리 진입로가 좁아서 관광객들이 오고 다니기 불편하고 열린도서관과 사람꽃복지관 진입로 또한 자동차가 양방향으로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포토맥강이 흐르는 그레이트 폭포’에 있는 음수대는 어른, 아이, 반려동물까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높이가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경기도는 공간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산책로에 턱 없애기, 포장면 평탄화, 경사면 완화 등산책로 교체·보수공사를 통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모두가 문턱없이 도내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이나 보행로 개선 등을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민 일보)

‘법’에 어긋남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작은 이야기 하나라도 경청하고 시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 낳기 좋은 논산,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논산, ‘동고동락’ 논산을 만드는데 식지않는 열정과 넓은 안목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논산시의회 의원 차경선**